

500만이 찾는 고군산 관광시대 연다

군산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맞아 관광편의시설·관광인프라 구축 총력

군산시가 내년 1월 고군산연결도로의 전면 개통을 앞두고, 고군산군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에서는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 일원에 2021년 까지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선유도 해수욕장 내 관광탐방안내센터와 화장실 등의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망주봉 인공폭포와 어린이 해양체험장을 조성하여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 고군산군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시도에는 몽돌해변의 '조약탈'을 형상화하는 소공원 조성과 지역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하고, 무녀도는 '염전'을 상징하는 소공원과 포토존을, 장자도에는 고군산 '해남이'를 상징하는 소공원과 포토존을 각각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마케팅과 대규모 팸투어 유치 등의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고군산연결도로

배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의 다양한 관광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여, 500만 관광객

이 찾는 고군산 관광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광탐방안내센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주요관광

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관광해설을 제공하고, 군산의 모든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광안내 홍보물을 상시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다양한 분야 배움·체험거리 제공

군산시, 내년 5월 개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준비 만전

군산시가 2018년 청소년의 달인 5월 군산에서 개최될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군산시의 공동 주최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일원에서 내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개최되어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 안전체험 및 청소년 활동과 연계된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내년 청소년박람회에 200여 개의 체험부스를 마련할 예정으로, 문화와 과학,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배움과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군산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강을 비롯해 공모전·포럼·전시회·공연 등 화려하고 차별화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준비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군산시'의 매력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일반 시민 등 15만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청소년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성과 함께 국내외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방문

농가 격려·애로사항 청취

정헌을 익산시장은 9일 오전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비 매입을 실시하는 황등면 울동창고를 방문해 추수와 출하준비에 힘쓴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시장은 이날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특히 관계자들에게 매입 농가들이 수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시 2017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포함) 매입물량은 총 1만7,227톤으로 산물비 300톤은 매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포대비 1만6,828톤은 이날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개 읍면동, 54개 정부양곡 창고에서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매당일 농민들은 "직접 매입장을 찾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농업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착한가게·착한가정 나눔 릴레이 이어져

익산시(시장 정헌을) 곳곳에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이 탄생하며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익산시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중앙동 금강안경원을 착한안경원 1호, 우주정보통신을 착한가게 1호, 한성민 가정을 착한가정 1호로 각각 선정했다.

금강안경원 박진수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안경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나눔에 동참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금강안경원은 앞으로 매월 2명의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시력검사 및 안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가게 1호 우주정보통신 김영운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초등학교 교사인 착한가정 1호 한성민 씨는 "소소하지만 학생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나눔 교육의



착한안경원 1호 중앙동 금강안경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익산신동 맛집 오복왕순대는 9일 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 중 진행되는 착한가게 나눔사업에 동참하고 현판을 전달받았다.

김기진 시장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복(福)중에 인연 복이 제일

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게의 나눔이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복왕순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한 성금은 신동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정책 세미나 개최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전북대병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과제 진단,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9일 군산시발전협의회(김용환 의장)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건립 예정지의 생태환경 문제로 지난해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4월 전북대병원이 타당성 재검토 자체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어나는 의구심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양상을 비추어 왔다. 이에, 군산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의 개선을 기대해 왔던 시민들의 실망감도 매우 큰 상황으로 최근,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30만 시민 서명운동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연성 군산대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종합토론에는 군산시발전협의회 김용환 의장을 비롯 시의회, 언론인, 경찰관, 기업인, 지역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장애인체육관·평생교육시설 건립 순항

군산시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이 주요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현 공정을 68% 보이며 순조로운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은 성산면에 소재한 금강공원 내에 총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회복 및 재활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어, '하늘로 솟으며 날아오르는 날개의 형상을 통해 장애를 이겨내고 자립하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Restart'라는 콘셉트로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물의 1층은 우천시에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편리성과 개방성을 확보했으며,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강당 등을 배치하고, 3층에는 운동시설 등을 계획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동선 확보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 행복돌출군산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